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amgongsin-hoemaengrok*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3.1 「三功臣會盟錄」의 書誌와 形態
2. 朝鮮初期의 三功臣과 會盟	3.2 三功臣會盟文의 內容과 校勘
2.1 朝鮮初期의 三功臣	3.3 三功臣會盟의 參與功臣과 校勘
2.2 朝鮮初期의 功臣會盟	4. 結 論
3. 「三功臣會盟錄」의 分析	<참고문헌>

< 초 록 >

본 研究는 조선시대 초기의 『三功臣會盟錄』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三功臣會盟錄』은 開國·定社·佐命의 三功臣이 太宗 4년(1404) 11월 16일에 大淸觀 북쪽에서 會盟한 기록으로 會盟文과 會盟에 참여한 功臣의 名單으로 構成되어 있다.

(2) 『三功臣會盟錄』의 會盟文은 삼공신들이 함께 모여 丹心을 맹서한 盟誓文으로 『太宗實錄』에 수록된 會盟文과는 字句에서 다소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이 『太宗實錄』에 수록된 회맹문에 비하여 훨씬 자세한 편이다.

(3) 三功臣에 녹훈된 공신은 99인이나 會盟祭에 참여한 공신은 66인이다. 그 중 手決한 공신은 41인이고 署名하지 않은 공신은 25인이며, 33인의 공신이 不參한 事由는 이미 卒去하였거나 流配 중이었던 때문이다.

(4) 會盟祭에 참여한 66인 공신의 姓名과 君號 등이 『朝鮮王朝實錄』의 기록과 字句에 差異가 있는 것은 通名과 初名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誤謬로 인한 것인 듯하다.

(5)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은 『太宗實錄』에 수록된 會盟文의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고 會盟功臣의 名單도 비교적 精確한 편이며, 현재로서는 唯一한 版本의 資料인 만큼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要語: 『三功臣會盟錄』, 開國功臣, 定社功臣, 佐命功臣, 功臣, 會盟錄, 太宗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2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Samgongsin-hoemaengrok*(『三功臣會盟錄』) of Gaegukgongsin, Jeongsagongsin and Jwamyonggongsin in early Joseo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amgongsin-hoemaengrok* is a record that major meritorious retainers of early Joseon Dynasty banded together to swear allegiance to their king and the nation at the north of Daechongwan on November 16th, 1404(Taejong 4). It contains the entire text of covenant and the lists of meritorious retainers who attended the event of covenant.

(2) Hoemaengmun(會盟文) of *Samgongsin-hoemaengrok* is a text of covenant that major meritorious retainers did fealty to the king and the nation, and it has some differences in words and phrases compared with Hoemaengmun of *The Annual of King Taejong*(『太宗實錄』). That is, the former is more detailed than the latter.

(3) Only 66 meritorious retainers attended Hoemaengje(會盟祭), the event of covenant, in total 99 of them. Out of 66 meritorious retainers who participated in Hoemaengje, 41 left their signature of attendance and other 25 did not. The other 33 meritorious retainers did not attend Hoemaengje because they already died or lived in exile.

(4)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records of meritorious retainer's name who attended the Hoemaengje between *Samgongsin-hoemaengrok*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ecause two materials selected and used various names which differ in words and phrases but refer to same person such as common names, childhood names etc. Otherwise, there might be errors in writing.

(5) Hoemaengmun of *Samgongsin-hoemaengrok* is more detailed than *The Annual of King Taejong*'s, and the lists of meritorious retainers' names are also generally accurate. Considering *Samgongsin-hoemaengrok* is the only material of Hoemaengrok in the reign of King Taejong, it deserves to be designated and preserved as a local cultural asset.

Key words: *Samgongsin-hoemaengrok*, Gaegukgongsin, Jeongsagongsin, Jwamyonggongsin, Gongsin, Hoemaengrok, Taejong

1. 緒 言

功臣은 國家나 王室을 위하여 功勳을 세운 인사들에게 賜給된 勳號이며, 勳功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錄勳하고 褒賞하던 國家制度이다.

朝鮮 建國의 초기인 太祖朝·定宗朝·太宗朝에는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 등 三功臣이 錄勳된 바 있다.

功臣會盟은 공신들의 집단 모임으로 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犧牲物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그 피를 입술에 발라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돌(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誓約을 꼭 지키자!’는 丹心을 맹세하던 忠誠儀式의 하나이다. 功臣會盟錄은 功臣會盟祭에서 맹서한 會盟文과 참여한 공신들의 名單을 記錄한 文書이다.

本稿는 조선시대 초기의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의 錄勳과 會盟의 개괄을 중심으로 「三功臣會盟錄」의 分析과 校勘을 통하여 본 會盟錄의 學術的 가치와 文化財의 가치를 考究함으로써, 功臣會盟錄의 研究¹⁾²⁾에 一助하고자 함은 물론 文化財指定을 위한 基礎研究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朝鮮初期의 三功臣과 會盟

2.1 朝鮮初期의 三功臣

朝鮮朝는 建國의 초기인 太祖朝에서 太宗朝에 이르기까지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 등 3차에 걸쳐 三功臣을 錄勳한 바 있다.

이들 三功臣의 錄勳은 왕조의 建國과 더불어 王子의 亂이나 王位擁立 등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공신제도가 국가의 근경을

1) 朴文烈, “「同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513-535. 書誌學會.

2)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4輯(2006), 37-61. 書誌學會.

극복하는데 기여한 인사들을褒賞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음을 감안할 때, 조선 건국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무려 3차에 걸쳐 공신이 녹훈된 것은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격동기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1.1 開國功臣

開國功臣은太祖를 도와朝鮮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賜給된 功臣勳號이다.

開國功臣의 錄勳은 태조가 開京의 壽昌宮에서 즉위한지 1개월 뒤인 太祖 원년(1392) 8월 2일(신해)에 開國功臣都監을 설치³⁾하고 8월 20일(기사)에 교지로 개국공신의 位次를 정⁴⁾하고 9월 16일(갑오)에 功臣都監에서 개국공신의 포상규정을 上言하여 允許되면서 시작되었다.⁵⁾

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8月 2(辛亥)日條.
置功臣都監.

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8月 20(己巳)日條.

敎定開國功臣位次曰 前朝君位 自恭愍王無子薨逝 妖僧辛屯之子禍乘間竊據 荒淫無道 恣行殺戮 歲戊辰 妄興師旅 將犯上國之境 而諸將舉義回軍 禍乃自知其罪 傳位子昌 王氏已絕者十有六年 猶尚擇于宗親 以定昌府院君瑤 權署國事 瑤乃昏迷不法 忘經遠之大體 見目前之小利 知其有私 不知有功 田制惡其經界之正 公廩竭於子壻之奉 凡爲正人君子 則不唯忌憚 必欲加罪 讒詔面諛 則不唯親昵 曲加任用 賞罰無章 以壞國法 用度無節 以傷民財 惟聽姻婭婦寺之言 讜言之士 皆放黜之 民怨神怒 妖孽屢作 禍亂之機 日生不已 門下左侍中裒克廉·右侍中趙浚·門下侍郎贊成事金士衡·鄭道傳·興安君李濟·義安伯李和·參贊門下府事鄭熙啓·李之蘭·判中樞院事南閻·知中樞院事張思吉·僉書中樞院事鄭摠·中樞院副使趙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典書趙璞·大將軍吳蒙乙·鄭擢等 識天命之去就 人心之向背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寡躬 共成大業 其功甚大 帶礪難忘 判三司事尹虎·工曹典書李敏道·大將軍朴苞·禮曹典書趙英珪·知中樞院事趙胖·平壤尹趙溫·同知中樞院事趙琦·左副承旨洪吉旼·成均大司成劉敬·判司僕寺事鄭龍壽·判軍資監事張湛等 參謀與議 推戴寡躬 其功亦大 都承旨安景恭·中樞院副使金禎·前漢陽尹柳愛廷·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懃·戶曹典書吳思忠·刑曹典書李舒·判殿中寺事趙英茂·前禮曹判書李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金輅·孫興宗·司憲中丞沈孝生·典醫監高呂·校書監張至和·開城少尹咸傅霖等 在前朝亂政之時 注意寡躬 以至今日 固守不變 其功可賞 將上項人等 次次賜功臣之號 其褒賞之典 有司舉行 中樞院使金仁贊 不幸身沒 嘗於克廉等 決疑定策 推戴寡躬之時 同心相濟 其功甚大 並於克廉例施行.

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9月 16(甲午)日條.

태조 원년(1392) 9월 21일(기해)에 개국공신에게 공신녹권을 分賜⁶⁾하고 9월 27일(을사)에 趙狷·韓尙敬·任彥忠·黃居正·張思靖·韓忠·閔汝翼 등 7인을 개국공신에 추록⁷⁾한 뒤, 10월 9일(정사)에 개국공신의 훈호를 하사⁸⁾하고 11월 6일(계미)에 功臣教書를 分賜하면서⁹⁾ 일단락되었다.

그 뒤로 태조 원년(1392) 11월 19일(병신)에 黃希頌을 개국공신에 추록하고¹⁰⁾ 태조 4년(1395) 7월 13일(갑진)에 개국공신들의 화상을 봉안할 長生殿을 세우고¹¹⁾ 동년(1395) 9월 29일(경신)에 新宮에 功臣堂 5칸을 준공¹²⁾하였다. 태조 7년(1398) 12월 15일(정사)에 李芳遠·李芳毅·李芳幹 등 3인을 개국공신에 추록하면서¹³⁾

功臣都監上言 門下左侍中裒克廉·右侍中趙浚等十六人 灼知天命人心之所在 決議定策 推戴殿下 以成大業 是雖殿下聖德神功 應天順人 亦惟命世之臣 盡忠奮義 佐命開國 誠如聖教所謂其功甚大 帶礪難忘者矣 …

- 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9月 21(己亥)日條.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教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特賜侍中裒克廉·趙浚 高頂笠·玉頂子·玉纓具 是日 賜姓駙馬興安君李濟 許同宗姓.
- 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9月 27(乙巳)日條.
教都評議使司曰 上將軍趙狷 右承旨韓尙敬 判繕工監事任彥忠 判軍器監事黃居正 大將軍張思靖·韓忠 兵曹議郎閔汝翼 開國之初 亦各有功 趙狷依尹虎例 餘依安景恭例 皆賜號開國功臣 舉行褒賞.
- 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10月 9(丁巳)日條.
賜開國功臣之號 一等曰佐命開國 二等曰協贊開國 三等曰翊戴開國.
- 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11月 6(癸未)日條.
賜開國功臣等教書及諸翁主宅主印信 功臣等享上 其教工曹典書李敏道書 諫議大夫李文和所製 并稱其卜筮醫藥之能 敏道告於上 以爲 紀功不悉 錄此數事 是簡臣也 上命改之.
- 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11月 19(丙申)日條.
教商議中樞院事黃希頌 予自在潛邸時 常在麾下 有捍禦之勞 且於前朝鄭夢周等 操弄國柄 陰誘臺諫 陷害忠良之際 予方墮馬莫能興 姦黨之禍 殆將及予 而乃繕鍊兵卒 翼戴寡躬 令其姦謀摧沮 其功爲大 門下左侍中裒克廉等推戴寡躬之時 適丁父憂 雖未參謀 若微希頌捍禦之力 焉有今日 近者 稱下於原從功臣之例 在予報功之意 殊爲未滿 可於開國二等功臣尹虎之例稱下.
- 1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4年 7月 13(甲辰)日條.
命營長生殿于闕西 欲垂功臣圖象 諸功臣出錢穀有差 以助其費.
- 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4年 9月 29(庚申)日條.
是月 太廟及新宮告成 太廟太室七間 同堂異室 內作石室五間 左右翼室各二間 功臣堂五間 神門三間 東門三間 西門一間 繚以周垣 …
- 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12月 15(丁巳)日條.

開國功臣의 錄勳에 관한 事案은 완결되었던 것이다.

<表 1> 開國功臣의 位次와 褒賞 內容

等級	功臣名	人員	褒賞內容
佐命 開國 1等	金士衡·金仁贊·南 閻·南 在· 裴克廉·吳蒙乙·李芳幹·李芳遠 ·李芳毅·李 濟·李之蘭·李 和 ·張思吉·鄭道傳·鄭 摠·鄭 擢· 鄭熙啓·趙 璞·趙仁沃·趙 浚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立閣圖形 立碑紀功 封爵錫土 •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者甥姪女婿超二等 • 田地幾[一百五十]結 奴婢幾[十五]口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一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協贊 開國 2等	朴 苞·劉 敬·尹 虎·李敏道·張 湛 ·鄭龍壽·趙 涓·趙 琦·趙 胖· 趙英珪·趙 溫·洪吉叵·黃希碩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立閣圖形 立碑紀功 •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婿超等 • 田地幾[一百]結 奴婢幾[十]口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二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翊戴 開國 3等	高 呂·金 裊·金 輅·閔汝翼·孫 興宗·沈孝生·安景恭·吳思忠· 柳爰廷·李 勳·李伯由·李 敷· 李 舒·李 稷·任彥忠·張思靖· 張至和·趙英茂·韓尙敬·韓 忠· 咸傳霖·黃居正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立閣圖形 立碑紀功 • 父母妻超等封贈 直子超等蔭職 無直子則 甥姪女婿錄用 • 田地幾[七十]結 奴婢幾[七]口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三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計	55	55	

이상과 같이 개국공신은 佐命開國功臣 20인, 協贊開國功臣 13인, 翊戴開國功臣 22인 등 도합 55인이 녹훈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그 位次에 따라 土田와 奴婢 등 여러 가지 特典이 부여되었다.

追錄我殿下及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開國之功 視一等功臣趙浚例褒賞 上曰 三弟首唱大義 開國創業 其功莫大 帶礪難忘 當初上王以親子之嫌 不紀其功 以至今日 然有功當賞 古今常典 非寡人所得辭 於是 各賜奴婢三十口·土田二百結 立閣圖形 樹碑紀功.

2.1.2 定社功臣

定社功臣은 定宗 즉위년(1398)에 태조의 제8남인 李芳碩과 그를 옹호한 鄭道傳·南闡·沈孝生·張至和·李勤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새로운 정권기반을 마련하고 宗社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賜給된 功臣勳號이다.

定社功臣의 錄勳은 정종 즉위년(1398) 9월 17일(기축)에 왕이 李芳遠과 더불어 정사공신의 位次를 논한 교지를 전하면서 시작¹⁴⁾되어 10월 1일(계묘)에 공신도감에서 공신의 녹훈과 등급별 포상내역을 주상하여 윤희¹⁵⁾되었다.

그리고 정종 즉위년(1398) 11월 18일(경인)에 왕이 정사공신에게 敎書와 錄券을 頒賜¹⁶⁾하고 정종 원년(1399) 8월 12일(기유)에 공신도감에서 御容과 정사공

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9月 17(己丑)日條.

上與我殿下 論第定社功臣 命都承旨李文和傳旨曰 國家創業未久 誠宜端本正始 以凝天命 傳祚萬世 不幸奸臣道傳·闡等 當上王失豫彌留之際 欲挾幼孺爲亂 謀害我諸兄 幾覆我已成之業 禍在不測 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殿下下諱·上黨侯李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門下府事李茂·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門下李居易·參知門下趙英茂 奮忠決策 定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難忘 寧安侯良祐·青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事之蘭·參贊門下思吉·商議門下趙溫·判中樞院事金格·前商議中樞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天祐·商議中樞思靖·同知中樞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疾等 推誠協贊 定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難忘 褒賞之典 有司舉行.

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10月 1(癸卯)日條.

功臣都監上言 伏審王旨 國家創業未久 宜當端本正始 傳祚萬世 奸臣道傳·闡等 於上王失豫彌留之際 挾幼孺謀害宗親 幾覆已成之業 禍在不測 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我殿下下諱·上黨侯李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門下府事李茂·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門下府事李居易·參知門下府事趙英茂等 奮忠決策 定難反正 是雖殿下有德潛邸 天與人歸 以致戡定禍亂 受命繼統 亦賴名世之臣佐命定社之烈 誠有如殿下之旨 其功勞不細 永世難忘 請以定社一等功臣爲稱 … 寧安侯良祐·青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李之蘭·參贊門下府事張思吉·商議門下府事趙溫·判中樞院事金格·商議中樞院事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李天祐·商議中樞院事張思靖·同知中樞院事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李叔蕃·上將軍辛克禮·大將軍閔無咎·戶曹議郎閔無疾 推誠協謀 定難反正 誠有如殿下之旨 其功勞不細 永世難忘 請以定社二等功臣爲稱 ….

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11月 18(庚寅)日條.

신의 畫像을 바침¹⁷⁾으로써 완결되었다.

<表 2> 定社功臣의 位次와 褒賞 內容

等級	功臣名	人員	褒賞內容
定社 1等	金士衡·李居易·李茂· 李芳幹·李芳遠·李芳毅· 李伯卿·李和·趙璞· 趙英茂·趙浚·河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立閣圖形 樹碑紀功 封爵錫土 •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則 甥姪女壻超二等 • 田地幾[二百]結 奴婢幾[二十五]口 丘史七名 眞 拜把領十名 [內廐馬一匹鞍轡具 金帶一腰 表裏各一段] •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其子孫書於政案曰 定社一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定社 2等	金 輅·閔無咎·閔無疾· 朴 苞·辛克禮·沈 悰· 李福根·李叔蕃·李良祐· 李之蘭·李天祐·張 湛· 張思吉·張思靖·張 哲· 鄭 擢·趙 溫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立閣圖形 樹碑紀功 •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則 甥姪女壻超等 • 田地幾[一百五十]結 奴婢幾[十五]口 丘史五名 眞 拜把領八名 [內廐馬一匹 金銀帶一腰 表裏 各一段] •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其子孫書於政案曰 定社二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計	29	29	

이상과 같이 定社功臣은 1등 12인과 2등 17인 등 도합 29인이 녹훈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그 位次에 따라 土田와 奴婢 등 여러 가지 特典을 부여되었다.

2.1.3 佐命功臣

佐命功臣은 정종 2년(1400)에 李芳遠의 위세를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한 李芳幹과 朴苞 등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고 태종이 국왕으로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태종 원년(1401)에 賜給된 功臣勳號이다.

宴定社功臣于勤政殿 各賜教書錄券 極權乃罷.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定宗 1年 8月 12(己酉)日條.
功臣都監進御容及定社功臣影子.

좌명공신의 錄勳은 태종 즉위년(1400) 11월 13일(계유)에 議政府에서 李來를 佐命功臣으로 삼도록 청¹⁸⁾하면서 시작되어 태종 원년(1401) 정월 15일(을해)에 그 위치를 4등으로 나누어 勳號를 下敎¹⁹⁾하고 동년(1401) 2월 25일(갑인)에 義安大君 李和 등 47인의 공신에게 敎書와 錄券 및 賜牌를 分賜²⁰⁾한 뒤 태종 2년(1402) 2월 15일(무진)에 좌명공신의 畫像을 그리게²¹⁾ 함으로써 완결되었다.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卽位年 11月 13(癸酉)日條.

議政府請以李來爲佐命功臣.

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1月 15(乙亥)日條.

錄佐命功爲四等 敎曰 往者逆臣朴苞 包藏禍心 陰挾懷安父子 謀害我骨肉 遂至稱兵向闕 肆爲兇逆 宗社安危 間不容髮 上黨侯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郎贊成事趙英茂·左軍摠制李叔蕃·中軍摠制閔無咎·左軍同知摠制辛克禮·驪城君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戡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超二等 田一百五十結 奴婢十三口 白銀五十兩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藝文春秋館學士李來 徇義忘私 聞變首告 盡忠佐命 義安公和·完山侯天祐 聞變赴急 以濟禍亂 翊戴佐命二等稱下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超等 田百結 奴婢十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昌寧伯成石璘·完川君淑·門下贊成事李之蘭·開城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柢·金英烈·右軍同知摠制尹坤·刑曹典書朴崙·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中寺事趙希閔·奉常卿柳沂等十二人 推誠勦力 累曾効忠 翊戴佐命三等稱下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婿蔭職 田八十結 奴婢八口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銀帶一腰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參贊門下府事趙瑋·三司左使趙溫·參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摠制趙卿·左軍摠制金承霖·右軍同知摠制徐益·前同知摠制洪恕·兵曹典書尹子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尹金鼎卿·右副承旨徐愈·上將軍李從茂·李膺·沈龜齡·大將軍延嗣宗·韓瑋·金宇·文彬·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人 輸誠協贊 久勤調護 翊戴佐命 軍資少監宋居信 當危救患 翊戴佐命四等稱下 父母妻封贈 直子蔭職 田六十結 奴婢六名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 銀帶一腰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一名 眞拜把領四名 許初入仕 並皆立闈圖形 樹碑紀功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于政案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

2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2月 25(甲寅)日條.

宴佐命功臣于北亭 召義安大君和等四十七人 手授敎書錄券及賜牌.

2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2年 2月 15(戊辰)日條.

命寫御容 佐命功臣四十影子并畫之.

<表 3> 佐命功臣의 位次와 褒賞 內容

等級	功臣名	人員	褒賞 內容
盡忠 佐命 1等	閔無咎·閔無疾·辛克禮·李居易·李 茂·李伯卿·李叔蕃·趙英茂·河 崙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立閣圖形 樹碑紀功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二等 ·田一百五十結 奴婢十三口 白銀五十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于政案 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翊戴 佐命 2等	李 來·李天祐·李 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立閣圖形 樹碑紀功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等 ·田百結 奴婢十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于政案 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翊戴 佐命 3等	金英烈·馬天牧·朴錫命·朴 崙·成石璣·柳 沂·尹 坤·尹 祗·李淑·李之蘭·趙希閔·黃居正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立閣圖形 樹碑紀功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蔭職 ·田八十結 奴婢八口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于政案 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翊戴 佐命 4等	權 近·金承霍·金 宇·金定卿·文 彬·徐 愈·徐 益·宋居信·沈龜齡·延嗣宗·柳 亮·尹 穆·尹子當·李升商·李 原·李 膺·李從茂·李 稷·趙 卿·趙 璞·趙 溫·韓 珪·洪 恕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立閣圖形 樹碑紀功 ·父母妻封贈 直子蔭職 ·田六十結 奴婢六名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 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一名 眞拜把領四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于政案 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計	47	47	

이상과 같이 佐命功臣은 1등 9인과 2등 3인 그리고 3등 12인과 4등 23인 등 포함 47인이 녹훈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그 位次에 따라 土田와 奴婢 등 여러 가지 特典을 부여되었다.

이상에서 논급한 조선 초기의 개국·정사·좌명 등 삼공신의 녹훈사항을 정리하여 <表>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 開國·定社·佐命 三功臣 一覽表

番號	功臣名	生沒年	本貫	號	諡號	君 號	職 任	開國 功臣	定社 功臣	佐命 功臣	改名	備考
01	高 呂	? -1402	濟州	-	-	高城君	典醫監	3	-	-		
02	權 近	1352-1409	安東	陽村	文忠	吉昌君	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	-	-	4		
03	金 裊	? -1398	慶州	-	齊肅	鷄林君	輔國崇祿左贊成	3	-	-		
04	金 輅	1355-1416	延安	-	恭頃	延城君	正憲大夫	3	2	-		
05	金士衡	1341-1407	安東	洛圃	翼元	上洛府院君	大匡輔國崇祿大夫	1	1	-		
06	金承滉	1354-1424	順天	-	襄景	麗山君	嘉靖大夫	-	-	4		
07	金英烈	? -1404	義城	孟巖	良孝	義城君	前資憲大夫參判承樞府事	-	-	3		
08	金 宇	? -1418	熙川	-	襄靖	熙川君	嘉靖大夫左軍都摠制府同知摠制	-	-	4		
09	金仁贊	? -1392	楊根	毅菴	忠愍	[益和君]	[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	1	-	-		
10	金定卿	1345-1419	安山	-	威靖	蓮城君	資憲大夫	-	-	4		
11	南 閔	1354-1398	宜寧	-	剛武	宜寧君	參贊門下府事兼判尙瑞司事	1	-	-		
12	南 在	1351-1419	宜寧	龜亭	忠景	宜寧君	崇政大夫議政府贊成事	1	-	-		
13	馬天牧	1358-1431	長興	-	忠靖	會寧君	嘉靖大夫	-	-	3		
14	文 彬	? -1413	南平	-	平翼	[越川君]	嘉善大夫中軍都摠制府僉摠制	-	-	4		
15	閔無咎	? -1410	驪興	-	-	驪江君	資憲大夫參判承樞府事	-	2	1		
16	閔無疾	? -1410	驪興	-	-	驪城君	資憲大夫	-	2	1		
17	閔汝翼	1360-1431	驪興	-	景定	驪川君	嘉靖大夫	3	-	-		
18	朴錫命	1370-1406	順天	頤軒	文肅	[平陽君]	通政大夫承樞府知申事	-	-	3		
19	朴 訔	1370-1422	潘南	鈞隱	平度	潘城君	嘉靖大夫	-	-	3		
20	朴 苞	? -1400	竹山	-	-	-	知中樞院事	2	2	-		
21	裴克廉	1325-1392	星山	筆菴	貞節	星山君	門下左侍中	1	-	-		
22	徐 愈	1356-1411	利川	-	良景	利城君	嘉靖大夫	-	-	4		
23	徐 益	? -1412	扶餘	-	莊襄	麻城君	嘉靖大夫	-	-	4		
24	成石璘	1338-1423	昌寧	獨谷	文景	昌寧府院君	大匡輔國崇祿大夫	-	-	3		
25	孫興宗	? -[1411]-	-	-	-	杆城君	正憲大夫	3	-	-		
26	宋居信	1369-1447	礪山	-	忠靖	[礪良君]	果毅將軍虎勇巡衛司護軍	-	-	4		
27	辛克禮	? -1407	靈山	-	-	鷲山君	資憲大夫	-	2	1		
28	沈龜齡	1350-1413	豐山	屏潭	靖襄	豐川君	嘉靖大夫	-	-	4		
29	沈 淙	? -1418	青松	-	景肅	青原君	輔國崇祿大夫	-	2	-	僚	
30	沈孝生	1349-1398	富有	-	-	富城君	藝文館大提學	3	-	-		
31	安景恭	1347-1421	順興	-	良度	興寧君	資憲大夫	3	-	-		
32	延嗣宗	1360-1434	谷山	-	靖厚	谷城君	嘉靖大夫參知承樞府事	-	-	4		

33	吳蒙乙	? -1398	寶城	-	-	寶城君	江原道觀察黜陟使	1	-	-	
34	吳思忠	1327-1406	寧遠	-	恭僖	寧城君	輔國崇祿大夫	3	-	-	
35	柳亮	1356-1416	文化	觀亭	忠景	文城君	正憲大夫	-	-	4	
36	柳愛廷	? -1399	-	-	-	瑞城君	西海道觀察黜陟使	3	-	-	
37	劉敏	? -1421	江陵	仙庵	文僖	玉川君	資憲大夫藝文館大提學	2	-	-	敬
38	柳沆	? -1410	瑞山	-	忠景	瑞寧君	嘉靖大夫	-	-	3	沂
39	尹坤	? -1421	坡平	-	昭靖	坡干君	嘉靖大夫	-	-	3	
40	尹穆	? -1410	坡平	-	-	原平君	嘉靖大夫	-	-	4	
41	尹子當	? -1422	漆原	-	靖平	漆原君	嘉靖大夫	-	-	4	
42	尹楫	? -1412	漆原	-	貞景	漆城君	資憲大夫	-	-	3	
43	尹虎	? -1393	坡平	-	靖厚	坡平君	判三司事	2	-	-	
44	李居易	1348-1412	清州	清虛堂	文度	西原府院君	領議政	-	1	1	
45	李懃	? -1398	固城	-	-	-	判中樞院事	3	-	-	
46	李來	1362-1416	慶州	-	景節	雞城君	資憲大夫	-	-	2	
47	李茂	1355-1409	丹陽	-	翼平	丹山府院君	大臣輔國崇祿大夫	-	1	1	
48	李敏道	1336-1395	尙州	-	直憲	商山君	商議中樞院事	2	-	-	
49	李芳幹	1362-1421	全州	-	良僖	懷安大君	懷安大君	1	1	-	
50	李芳遠	1367-1422	全州	-	恭定	靖安大君	國王	1	1	-	太宗
51	李芳毅	? -1404	全州	-	安襄	益安大君	益安大君	1	1	-	
52	李伯卿	1363-1414	清州	-	景肅	上黨君	議政府贊成事	-	1	1	佇·蔓
53	李伯由	? -1399	全州	-	良厚	完山君	禮曹判書	3	-	-	
54	李福根	? -[1421]	全州	-	安簡	寧寧君	[寧寧府院君]	-	2	-	
55	李敷	? -1422	公州	一派	剛興	興城君	嘉靖大夫	3	-	-	
56	李舒	1332-1410	洪州	松岡	文簡	安平府院君	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政丞	3	-	-	
57	李淑	1373-1406	全州	-	齊懿	完川君	[議政府贊成事]	-	-	3	
58	李叔蕃	1373-1440	安城	芸亭	忠肅	安城君	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	-	2	1	
59	李升商	? -1413	慶州	-	恭懿	[鶴林君]	通政大夫承樞府左代言	-	-	4	
60	李良祐	1346-1417	全州	-	安昭	寧安君	[完原府院君]	-	2	-	
61	李原	1368-1430	固城	容軒	襄憲	鐵城君	嘉靖大夫	-	-	4	
62	李膺	1365-1414	永川	-	貞景	[永陽君]	通政大夫承樞府右代言	-	-	4	
63	李濟	? -1398	星州	-	景武	興安君	右軍節制使	1	-	-	
64	李從茂	1360-1425	長水	-	襄厚	通原君	嘉靖大夫右軍都摠制府摠制	-	-	4	
65	李之蘭	1331-1402	青海	-	襄烈	青海君	判刑書事義興三軍府事軍節制使	1	2	3	歸化
66	李稷	1362-1431	星州	亨齋	文景	星山君	崇政大夫	3	-	4	
67	李天祐	1354-1417	全州	-	襄度	完山君	崇政大夫判司平府事	-	2	2	
68	李和	? -1408	全州	二樂亭	襄昭	義安大君	[義安大君]	1	1	2	
69	任彥忠	? - ?	-	-	-	-	判繕工監事	3	-	-	歸化
70	張湛	? -1400	-	-	良安	-	助戰節制使	2	2	-	僧侶
71	張思吉	? -1418	安東	-	僖襄	花山君	正憲大夫	1	2	-	
72	張思靖	? -[1420]	安東	-	-	花城君	嘉靖大夫	3	2	-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73	張至和	? -1398	-	-	-	興城君	忠清道觀察黜陟使	3	-	-	志和 [一名]
74	張 哲	? -1399	安東	-	莊襄	花山君	永興府使·太祖侍從	-	2	-	
75	鄭道傳	1342-1398	奉化	三峰	文憲	奉化君	判三司使	1	-	-	
76	鄭龍壽	? -1412	-	-	胡穆	長城君	資憲大夫	2	-	-	
77	鄭 摠	1358-1397	清州	復齋	文愨	西原君	藝文春秋館太學士	1	-	-	
78	鄭 擢	1363-1423	清州	春谷	翼景	清城君	資憲大夫	1	2	-	
79	鄭熙啓	? -1396	慶州	養性軒	良景	鷄林君	漢城府判事	1	-	-	
80	趙 狷	1351-1425	平壤	松山	平簡	平城君	資憲大夫中軍都摠制府都摠制	2	-	-	
81	趙 琦	? -1395	白川	-	忠毅	銀川君	義興親軍衛上鎭撫	2	-	-	
82	趙 璞	1356-1408	平壤	兩亭	文平	平原君	正憲大夫	1	1	4	
83	趙 胖	1341-1401	白川	-	肅魏	復興君	參贊門下府事	2	-	-	
84	趙 涓	1374-1429	漢陽	-	良敬	漢平君	嘉靖大夫知承樞府事	-	-	4	卿
85	趙英珪	? -1395	新昌	-	-	-	禮曹典書	2	-	-	評 [初名]
86	趙英茂	? -1414	漢陽	-	忠武	漢山府院君	大臣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3	1	1	
87	趙 溫	1347-1417	漢陽	-	良節	漢川君	崇政大夫	2	2	4	
88	趙仁沃	1347-1396	漢陽	-	忠靖	漢山君	中樞院副使	1	-	-	
89	趙 浚	1346-1405	平壤	松堂	文忠	平壤府院君	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政丞	1	1	-	
90	趙希閔	? -1410	豐壤	-	-	干陽君	嘉靖大夫中軍都摠制府同知摠制	-	-	3	
91	河 崙	1347-1416	晉州	浩亭	文忠	晉山府院君	大臣輔國崇祿大夫	-	1	1	
92	韓 珪	? -1416	清州	-	恭武	沔城君	嘉靖大夫參知承樞府事	-	-	4	
93	韓尙敬	1360-1423	清州	信齋	文簡	西川君	資憲大夫	3	-	-	
94	韓 忠	? - ?	[清州]	-	-	-	大將軍	3	-	-	農人
95	咸傳霖	1360-1410	江陵	蘭溪	定平	東原君	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兼司憲府大司憲	3	-	-	成 [誤]
96	洪吉眈	1353-1407	南陽	-	文景	南陽君	資憲大夫	2	-	-	
97	洪 恕	? -1418	南陽	-	康襄	陽城君	嘉靖大夫	-	-	4	
98	黃居正	? -[1416]	昌原	-	-	義原君	嘉靖大夫	3	-	3	
99	黃希頤	? -1394	平海	-	襄武	平海君	知中樞院事	2	-	-	

이상을 통해서 볼 때, 개국공신에 녹훈된 인사는 55인이고 정사공신에 녹훈된 인사는 29인이며 좌명공신에 녹훈된 인사는 47인으로 도합 131인이 공신에 녹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공신의 녹훈이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거행되어, 이들 131인의 공신들 중에는 중복으로 녹훈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복으로 녹훈된 공신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9인의 인사에 이르는 것이다.

2.2 朝鮮初期의 功臣會盟

공신들의 집단 모임인 功臣會盟은 국왕이 공신들과 함께 犧牲物로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입술에 발라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돌(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誓約을 꼭 지키자!’는 丹心을 맹세하던 忠誠儀式의 하나이다. 功臣會盟錄은 會盟祭에서 맹서한 會盟文과 會盟祭에 참여한 공신들의 명단을 記錄한 文書이다.

會盟文에는 대체로 “무릇 우리들 일을 같이한 사람들은 각기 마땅히 國王을 誠心으로 섬기고 친구를 信義로 사귀며,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고 이익을 다투어 서로 꺼리지 말며, 다른 사람의 離間하는 말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말과 顔色의 조그만 실수로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말며, 등을 돌려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을 맞대해서는 기뻐하지 말고 길으로는 서로 화합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 하지 말며, 過失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고 의심이 있으면 물어 보며, 疾病이 있으면 서로 扶助하고 환란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 神이 반드시 罪를 줄 것이다.”는 충성의 誓約이 들어 있다.

조선초기의 공신회맹은 태조 원년(1392) 9월 21일(기해)에 편전에서 開國功臣에게 宴會를 베푸는 것²²⁾을 시작으로 동년(1392) 9월 28일(병오)에 개국공신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함께 王輪洞에서 회맹²³⁾하고 개국공신들의 자손과 아우 및 사위들도 忠孝契를 맺고 王輪洞에서 회맹한 바²⁴⁾ 있다. 태조 원년(1392) 윤12월 28일(갑진)에는 개국공신들이 국왕을 위해 獻壽²⁵⁾하고 태조 5년(1396) 정월 11

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9月 21(己亥)日條.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教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

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9月 28(丙午)日條.

開國功臣會王世子及諸王子 盟于王輪洞 其載書曰 ….

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9月 28(丙午)日條.

開國功臣子孫弟壻結爲忠孝契 會盟于王輪洞.

2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閏12月 28(甲辰)日條.

開國功臣享上 各以次奉觴上壽 極權而罷.

일(경오)에는 개국공신들이 新宮의 내전에서 국왕을 위해 獻壽²⁶⁾하기도 하였다.

정종 즉위년(1398) 10월 9일(신해)에는 국왕이 定社功臣 29인을 거느리고 회맹하고²⁷⁾ 동년(1398) 11월 18일(경인)에는 勤政殿에서 정사공신에게 宴會를 베풀었으며²⁸⁾ 정종 2년(1400) 5월 17일(신사)에는 세자가 三軍府에서 정사공신을 연회²⁹⁾하였다.

태종 즉위년(1400) 11월 13일(계유)에는 開國功臣과 定社功臣들이 上王殿에 獻壽하고 이튿날에는 主上殿에 헌수³⁰⁾하였으며, 태종 원년(1401) 2월 12일(신축)에는 국왕이 馬巖의 壇아래에서 佐命功臣과 함께 祭服을 입고 敵血同盟하고³¹⁾ 공신들이 盟書를 두루 외울 수 없을 것을 걱정하여 공신도감에 명하여 傳寫하게 하여 頒賜하도록³²⁾ 하였다. 태종 1년(1401) 2월 25일(갑인)에는 北亭에서 佐命功臣들을 宴會하고³³⁾ 동년(1401) 윤3월 11일(경자)에는 淸和亭에서 功臣을 연회³⁴⁾하였다.

-
- 2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1月 11(庚午)日條.
功臣獻壽於新宮內殿.
- 2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定宗 卽位年 10月 9(辛亥)日條.
上率定社功臣二十九人同盟 其載書曰 ….
- 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11月 18(庚寅)日條.
宴定社功臣于勤政殿 各賜教書錄券 極權乃罷.
- 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定宗 2年 5月 17(辛巳)日條.
世子享定社功臣于三軍府.
- 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定宗 2年 11月 13(癸酉)日條.
開國及定社功臣 獻壽于上王殿 翼日 獻壽于主上殿.
- 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2月 12(辛丑)日條.
上如馬巖壇下 與佐命功臣 敵血同盟 用祭服 其載書曰 ….
- 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2月 12(辛丑)日條.
宴功臣 上謂功臣曰 予之親與於盟者 豈徒然哉 於是 詳說盟書之意 功臣感服 摠制徐益 酒酣起舞 上笑曰 此乃樊噲之舞也 命趙璞賦詩 群臣皆和 成石璘以母喪不至 命召 石璘承命 以吉服至 喜氣浮面 上曰 功臣焉能遍誦盟書乎 命功臣都監 使金瞻等傳寫 悉頒之.
-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2月 25(甲寅)日條.
宴佐命功臣于北亭 召義安大君和等四十七人 手授教書錄券及賜牌.
- 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閏3月 11(庚子)日條.
宴功臣于淸和亭 初 上以正殿狹隘 改構而廣之 起亭于宮之北 命河崙·權近名之 乃書淸和·樂山·無逸以進 上以無逸名殿 淸和名亭.

태종 3년(1403) 7월 1일(병자)에는 중친과 공신이 국왕을 위해 헌수³⁵⁾하였으며, 동년(1403) 12월 6일(기묘)에는 三功臣이 無逸殿에서 국왕을 위해 獻壽하고 中宮은 내전에서 三功臣의 命婦들을 연회³⁶⁾하였다.

태종 4년(1404) 3월 13일(갑인)에 처음으로 元子侍直을 두고 공신의 자제로 禮當하고³⁷⁾ 동년(1404) 10월 21일(기축)에는 국왕이 공신들에게 同心同德으로 王家를 夾輔할 것을 당부³⁸⁾하였으며, 동년(1404) 11월 16일(갑인)에는 大清觀 북쪽에서 삼공신들이 회맹한 바³⁹⁾ 있고 동년(1404) 11월 28일(병인)에는 삼공신이 無逸殿에서 국왕을 위해 헌수한 바⁴⁰⁾ 있었다.

태종 5년(1405) 4월 14일(기묘)에는 淸和亭에서 중친과 공신을 연회⁴¹⁾하고 동년(1405) 8월 28일(신묘)에는 國王이 三功臣의 盟簇에 친히 署押하고⁴²⁾ 이를

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3年 7月 1(丙子)日條.

宗親功臣獻壽 聯句唱和 侵夜乃罷.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3年 12月 6(己卯)日條.

三功臣獻壽於無逸殿 中宮與三功臣命婦 宴於內殿.

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3月 13(甲寅)日條.

以趙璞爲藝文館大提學 … 趙末生·陳遵侍學 趙興·柳謹侍直 是日 初置元子侍直 用功臣子弟 … 召元子諭善薛偁及侍學侍直等 使朴錫命命之曰 今爲元子多設官僚者 欲其常侍從而教導之 以成其德也 國祚長短·生民休戚 咸係焉 其可忽諸 教童子之法 雖以執法爲宗 然亦使之不至於厭怠 其教乃成 侍直等 皆以功臣子弟爲之者 欲其預令元子 親近交厚 信之無疑 以爲他日之輔弼 當予御國 其父兄誠心輔翼 而予亦親近 用之無疑 當元子聽政之日 此子弟等亦能誠心輔翼 而用之無疑 不亦美乎 但以善保養 勿論時人賢否得失 以成他日弊端 自中嚴令 毋得如此 如有犯令者 自中行罰以懲之 侍學等分番 日以講論爲事 侍直等分番 日夜侍衛 毋敢或怠.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0月 21(己丑)日條.

上命功臣等曰 國家往者戊寅庚辰年間事 無他 功臣中有道不同者 自相分黨 好生疑忌而構亂耳 若今日之事 居易豈憎予 又豈惡此兒輩耶 但其愚駭出言 偶干於國家故耳 願諸功臣 自今戒勿如此 同心同德 夾輔王家 幸莫大焉.

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1月 16(甲寅)日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其文曰 ….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1月 28(丙寅)日條.

三功臣獻壽于無逸殿 諸功臣不勝感悅 或獻詩或聯句或起舞 權甚入夜乃罷.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5年 4月 14(己卯)日條.

會宗親功臣于淸和亭 置酒.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5年 8月 28(辛卯)日條.

날인 29일(임진)에는 三功臣들이 모두 議政府에 모여 盟簇에 서명한 바⁴³⁾ 있다.

태종 7년(1407) 3월 29일에는 廣延樓에서 공신을 연회하고 盟簇을 分賜⁴⁴⁾ 하였으며, 태종 10년(1410) 5월 26일(임진)에는 功臣堂을 宗廟 담장 안의 東階로 옮기기도 하였다.⁴⁵⁾

태종 11년(1411) 4월 19일(기유)에는 공신들이 절반도 생존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자⁴⁶⁾ 이튿날인 20일(무술)에는 삼공신이 廣延樓에서 국왕을 위해 獻壽⁴⁷⁾ 하였으며, 동년(1411) 5월 4일(갑자)에는 長生殿을 수리하고 태조의 眞影과 개국공신의 畫像을 摹寫하도록⁴⁸⁾ 하였으며, 동년(1411) 6월 7일(병신)에는 長生殿에 친행하여 太祖의 眞影과 開國功臣의 畫상을 살피기도⁴⁹⁾ 하였다. 동(1411) 11월 3일(경신)에는 元從功臣들이 景福宮 북쪽에서 會盟⁵⁰⁾ 하기도 하였다.

태종 13년(1413) 5월 28일(병오)에는 삼공신이 慶會樓에서 국왕을 위해 獻壽⁵¹⁾하고 태종 15년(1415) 3월 18일(병진)에는 삼공신에게 畫像을 分賜⁵²⁾하였

親押開國定社佐命功臣盟簇.

-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5年 8月 8日 29(壬辰)日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咸會議政府 簽名于盟簇 賜酒.
-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3月 29(癸未)日條.
宴功臣于廣延樓 賜以盟簇 侍宴者 安平府院君李舒等三十八人.
-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0年 5月 26(壬辰)日條.
始構宗廟東西廂 移功臣堂於廟垣之內東階下.
-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1年 4月 19(己酉)日條.
賜賻黃居正妻之殯 … 有司以爲無例 命曰 功臣已半不存 因此起例可也 ….
-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1年 4月 20(庚戌)日條.
三功臣獻壽于廣延樓 盡歡而罷.
-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1年 5月 4(甲子)日條.
命修長生殿 且圖太祖眞及開國功臣影 遣完城君李之崇 奉迎平壤太祖眞 將以摹寫也.
-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1年 6月 7(丙申)日條.
幸長生殿 相安太祖眞與開國功臣圖畫之所也 遂詣仁德殿獻壽 極歡暮罷.
- 5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1年 11月 3(庚申)日條.
元從功臣等會盟于景福宮北 遣代言趙末生 賜宮醞.
-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5月 28(丙午)日條.
三功臣獻壽于慶會樓 上賜趙英茂鞍馬 餘皆賜馬一匹 成石璘·河崙 以病不與.
- 5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5年 3月 18(丙辰)日條.
分賜開國·定社·佐命三功臣影子 領議政府事河崙等詣闕拜謝.

으며, 태종 15년(1415) 5월 17일(계축)에는 공신의 保奏을 위해 任職을 맡기지 않도록⁵³⁾ 하였다.

태종 17년(1417) 1월 25일(임자)에는 開國功臣都監을 功臣都監으로 고치면서 앞을 공신들을 仲朔에 會集하게 하되 만일 죽거나 出使한 자가 있으면 그 적장이 侍宴하도록 하고⁵⁴⁾ 동년(1417) 3월 21일(정미)에는 功臣嫡長의 會盟을 元從功臣會盟의 例에 따르도록⁵⁵⁾ 하였으며, 동년(1417) 4월 11일(정묘)에는 功臣의 嫡長들이 景福宮 北洞에서 會盟⁵⁶⁾하고 동년(1417) 4월 15일(신미)에는 三功臣과 그 嫡長들이 仁政殿에서 국왕을 위해 獻壽⁵⁷⁾하였다.

태종 18년(1418) 6월 17일(병신)에는 국왕이 酒宴을 열어 宗親·功臣·議政府·六曹를 供饋⁵⁸⁾하였으며, 세종 즉위년(1418) 11월 3일(기유)에는 忠義衛를 설치하여 三功臣의 子孫으로 分充하여 宿衛하도록⁵⁹⁾ 하였다.

-
- 5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5年 5月 17(癸丑)日條.
… 上命吏兵曹曰 欲保全功臣 宜不任以事 因歷舉前代成敗之迹及宋太祖諭石守信·王審琦等語 以至戊寅開國功臣見敗之由 由是 崙等皆罷 只令封君.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7年 1月 25(壬子)日條.
改開國功臣都監爲功臣都監 以功臣有定社有佐命 只稱開國 爲未該也 命都監曰 功臣嫡長 一從功臣之例 自今令功臣仲朔會集 如有身歿及出使者 嫡長許令侍宴 嫡長之中幼弱者 待年十八 方許侍宴.
- 5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7年 3月 21(丁未)日條.
命功臣嫡長會盟 依元從功臣會盟例.
-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7年 4月 11(丁卯)日條.
功臣嫡長會盟于景福宮北洞 載書曰 ….
- 5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7年 4月 15(辛未)日條.
三功臣及嫡長獻壽于仁政殿 上見功臣等 惻然下淚 ….
- 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8年 6月 17(丙申)日條.
置酒 餉宗親·功臣·議政府·六曹.
-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卽位年 11月 3(己酉)日條.
設忠義衛 以開國·定社·佐命三功臣子孫 分充四番宿衛 身犯不忠不孝者及其子孫 不許入屬.

3. 「三功臣會盟錄」의 分析

본 「三功臣會盟錄」은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들이 大清觀 북쪽에서 모여 會盟한 기록으로, 태종은 會盟文에 署押은 하였으나 會盟祭에 親臨하지는 않았던 것⁶⁰⁾으로 기록되어 있다.

태종은 일찍부터 三功臣이 함께 회맹한 적이 없어 서로 協和하지 못할까를 염려하였으나 이 회맹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었으며, 이 會盟祭에는 監司와 邊鎮·州·牧의 지방관들까지도 모두 와서 참여한 것으로 기록⁶¹⁾되어 있다.

3.1 「三功臣會盟錄」의 書誌와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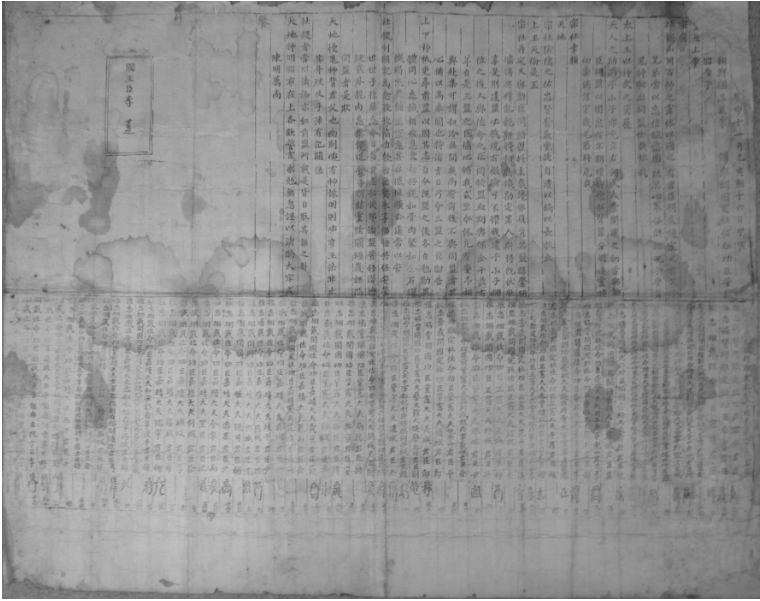
본 「三功臣會盟錄」의 書誌와 形態事項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⁶²⁾

三功臣會盟錄 / 功臣都監 編. -- 木版本. -- [漢城]: [功臣都監], [太宗 4(1404)].
1枚(全紙 2枚 連接): 手決, 四周單邊, 全郭 69.5 × 104.5 cm, 界線, 2段, 行字數不定, 無版口, 無魚尾; 83.5 × 105.5 cm. 壯紙.
上段: 全郭(40.0×104.5cm), 全葉(42.5×105.5cm) 行字數(36行+四周雙邊白匡)
下段: 全郭(29.5×105.5cm), 全葉(41.0×105.5cm) 行字數(66行)
白匡文: 國王臣李 芳遠
內容: 太宗 4(1404, 甲申)年 11(己亥)月 16(甲寅)日에 三功臣 66人이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한 三功臣會盟祭의 會盟錄
狀態: 全葉上下左右 端末磨減, 上段左右端 補修

6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1月 16(甲寅)日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

6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1月 16(甲寅)日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 開國·定社·佐命 三功臣 未嘗同盟 上慮三功臣未能和協 會而同盟 以一其心 監司邊鎮州牧分憂者 皆來與焉 三功臣六十六人 盟訖詣闕 各賜表裏 御無逸殿 設大宴以慰之.

62)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功臣都監], [太宗 4(1404)]).



<寫眞 1> 「三功臣會盟錄」의 形態

3.2 三功臣會盟文의 內容과 校勘

3.2.1 三功臣會盟文의 內容

會盟文은 국왕이 공신들과 함께 犧牲物로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입술에 발라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誓約을 꼭 지키자!’는 丹心의 맹세이다.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된 三功臣會盟祭에서 사용된 본 會盟文의 내용은 餘他의 會盟文의 내용과 크게 다른 바 없다. 본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歲 갑신년(1404) 11월(기해) 16일(갑인)에 朝鮮國王 臣 李芳遠은 삼가 開國·定社·佐命功臣 등을 거느리고 감히 皇天의 上帝·宗廟·社稷과 山川百神의 神靈께 밝게 告 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나라에 君臣과 朋友가 있는 것은 家庭에 父子와 兄弟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忠誠·信義·誠實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 길이 終始를 보존해야 하는 것인 바, 하물며 鬼神에게 要節하고 피를 마시고 同盟하는 人士들이겠나이까! 생각건대, 우리 太上王은 神武한 資質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었으며, 小子도 左右에서 輔弼하여 큰 基業을 이루었나이대! 開國 초에 먼저 勳臣과 더불어 同盟하여 忠誠과 信義를 굳게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權奸이 私心을 품고 盟誓를 저버리고 朋黨을 만들고 幼穉을 끼고 嫡統을 빼앗아 우리 兄弟를 해치기를 도모하여 장차 우리 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나이대! 다행히 天地와 宗社의 蔭德의 도움으로 충성스럽고 어진이가 義로 奮發하자 흉도도 스스로 潰滅되었나이대! 嫡長子로서 上王을 扶腋하여 擁立하니 天倫이 이에 바르게 되고 宗社가 다시 安定되었나이대! 또한 勳臣과 더불어 같이 盟好를 맺은지 얼마 되지 않아 奸邪한 이가 다시금 그 盟誓를 저버리고 變端을 엮어 집안끼리 싸우게 하여 擧兵하여 叛亂을 일으켰으나, 勳親과 將相이 시기에 응하여 平定하여 罪人은 곧 잡아 이미 그 罪를 伏罪하였나이대! 이것은 盟誓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徵驗으로 나타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나이까! 小子가 王位를 계승한 뒤에도 또한 佐命한 臣下와 더불어 同盟하여 피를 마시고 더불어 保命할 것을 기약한지 벌써 여러 해이나이다! 이때부터 三盟의 臣下가 마음을 합하여 저를 輔弼하여 이에 지금까지 平安할 뿐 아니라 慶弔가 서로 더불어 赴集하였으니, 和合에 틈이 없었다고 할 것이나이다! 일찍이 전후로 同盟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未安할까 염려하여, 특별히 吉日을 가려서 이에 三盟의 臣下를 모아 上下의 神祇께 밝게 告하고 다시금 진의 盟誓를 찾아서 그 뜻을 굳게 하려나이다! 지금부터 이미 盟誓한 후에는 각각 스스로 勉勵하여 異體同心하며, 忠誠으로 서로 믿고 恩愛로 서로 좋아하며, 親愛를 骨肉같이 하며, 굳건하기를 金石같이 할 것이나이다! 精誠과 忠誠을 다하여 王室을 夾輔하며, 그 私憾을 잊고 오로지 公道에 따르며, 항상 社稷의 平安과 國家가 이로워지기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協力하여 終始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福祿을 누리면서 함께 安全과 榮華를 보존하여 世世子孫이 결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나이다! 진실로 私情을 품고 奸邪한 마음을 끼거나, 盟誓를 어기고 和好를 저버리거나, 몰래 疑心하여 두 마음을 품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꺼려하거나, 讒言을 꾸며 變端을 만들거나, 朋黨을 나누어 結黨하거나, 나라의 傾覆을 꾀하거나, 同盟한 이를 誣陷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天地를 속이고 鬼神을 업신여기며 君父를 배신하는 것이니, 죽어서는 반드시 神誅의 罰酒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반드시 王法이 있어 罪가 그 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災殃이 子孫에게까지 미칠 것이나이다! 社稷에 관계된 죄를犯하는 자는 마땅히 法으로 論하며 또한 진의 盟誓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리니, 이는 모두 自取하는 것일 뿐 그 누구의 허물이겠나이까! 天地神明께서 위에 밝게 布列하여 있으시니, 각기 盟誓한 말을 恭敬하여 永遠히 힘쓰고 疏忽하지 않을 것이나이다! 삼가 淸酌과 大牢를

法式대로 陳設하고 明薦하여 欽尙하오니 歆饗하소서!
國王 臣 李芳遠⁶³⁾

회맹제가 끝나고 공신들이 詣闕하자 국왕은 공신들에게 각각 表裏를 하사하고 無逸殿으로 나아가 宴會를 베풀어 공신들을 위로하였다.⁶⁴⁾

3.2.2 三功臣會盟文의 校勘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의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과 「太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는 同日의 會盟文과는 字句에서 다소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본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과 「太宗實錄」에 수록된 회맹문의 기록을 서로 對比하여 校勘한 결과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3)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功臣都監], [太宗 4(1404)].

有歲次甲申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朝鮮國王臣李[諱] 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 敢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國之有君臣朋友 猶家之有父子兄弟 當以忠信誠懇 固結其心 永保終始 況乎要質鬼神 敵血同盟者哉 惟我太上王 以神武之資 獲天人之助 而予小子亦克左右 弼成大業 開國之初 首與勳臣同盟 以固忠信 不期權奸 懷私背盟 分明造黨 挾幼奪嫡 謀害我兄弟 將危我宗社 幸賴天地宗社陰鷲之佑 忠賢奮義 兇徒自潰 以嫡以長 扶立上王 天倫是正 宗社再定 又與勳臣 同結盟好 未幾 讒邪復背其盟 構讐鬪墻 稱兵作亂 親勳將相 應機勘定 罪人斯得 既伏厥辜 是則違盟必戮 現有徵驗 可不懼哉 逮予小子繼位之後 又與佐命之臣 同盟敵血 期與保全 于茲有年 自是三盟之臣 協心輔我 式至今休 凡有慶弔相與赴集 可謂和洽無間矣 尙慮前後不與同盟者 其心猶以爲未固也 特消吉日 乃會三盟之臣 昭告上下神祇 更尋前盟 以固其志 自今既盟之後 各自勉勵 異體同心 忠誠相信 恩愛相好 親如骨肉 堅如金石 殫誠竭忠 夾輔王室 忘其私憾 惟順公道 常以安社稷利國家爲念 孜孜協力 終始無變 永享福祿 共保安榮 世世子孫 無忘今日 苟有匿私挾邪 滌濫背好 潛懷疑貳 外親內忌 搆讒造孽 分朋結黨 陰圖傾覆 誣陷同盟者 是欺天地慢鬼神背君父也 幽則必有神誅 明則必有王法 非止其身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亦如前盟所載 是皆自取 其誰之咎 天地神明 昭布在上 各欽誓言 永勉無忽 謹以清酌大牢式 陳明薦尙饗 國王臣李 芳遠.

6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1月 16(甲寅)日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 三功臣六十六人 盟詔詣闕 各賜表裏 御無逸殿 設大宴以慰之.

<表 5> 三功臣會盟文의 校勘

番號	三功臣會盟文			『太宗實錄』의 會盟文 ⁶⁵⁾	備考
	段次	行次	內容	內容	
01	上	01	有歲次 … 十六日甲寅 ⁶⁶⁾	甲寅開國 … 其會其文曰 ⁶⁷⁾	字句
02	上	02	朝鮮國王臣李	朝鮮國王臣諱	字句
03	上	08	敵血同盟者哉	敵血司盟者哉	字句
04	上	11	懷私背盟 <u>分明造黨</u>	懷私背盟	無錄
05	上	15	忠賢奮義 <u>兇</u> 徒自潰	忠賢奮義 <u>凶</u> 徒自潰	字句
06	上	17	宗社再 <u>定</u> 又與勳臣	宗社再 <u>安</u> 又與勳臣	字句
07	上	18	罪人斯得 <u>既</u> 服厥	罪人斯得 <u>既</u> 服厥	字句
08	上	21	<u>協</u> 心輔我式至今休	<u>協</u> 心輔我式至今休	字句
09	上	21	<u>凡</u> 有慶弔相	-	無錄
10	上	22	<u>與</u> 赴集可謂和洽無間矣	可謂和洽無間矣	無錄
21	上	23	心猶以爲未固 <u>也</u>	心猶以爲未固	無錄
22	上	24	上下神祇更尋前盟	上下神祇更尋前盟	字句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11月 16(甲寅)日條.

開國·定社·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其文曰 朝鮮國王臣諱 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 敢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國之有君臣朋友 猶家之有父子兄弟 當以忠信誠懇 固結其心 永保終始 況乎要質鬼神 敵血司盟者哉 惟我太上王 以神武之資 獲天人之助 而予小子亦克左右 弼成大業 開國之初 首與勳臣同盟 以固忠信 不期權奸 懷私背盟 挾幼奪嫡 謀害我兄弟 將危我宗社 幸賴天地 宗社陰鷲之佑 忠賢奮義 凶徒自潰 以嫡以長 扶立上王 天倫是正 宗社再安 又與勳臣 同結盟好 未幾 讒邪復背其盟 構讐鬪墻 稱兵作亂 親動將相 應機勘定 罪人斯得 既服厥辜 是則違盟心戮 現有徵驗 可不懼哉 逮予小子繼位之後 又與佐命之臣 同盟敵血 期與保全 于茲有年 自是三盟之臣 協心輔我 式至今休 可謂和洽無間矣 尙慮前後不與同盟者 其心猶以爲未固 特涓吉日 乃會三盟之臣 昭告上下神祇 更尋前盟 以固其志 既盟之後 各自勉勵 忠誠相信 恩愛相好 親如骨肉 堅如金石 殫誠竭忠 夾輔王室 忘其私憾 唯順公道 常以安社稷利國家爲念 孜孜協力 終始無變 永享福祿 共保安榮 世世子孫 無忘今日 苟有匿私 挾邪 渝盟背好 潛懷疑貳 外親內忌 構讒造孽 分朋結黨 陰圖傾覆 誣陷同盟者 是欺天地 慢鬼神背君父也 幽則必有神誅 明則必有王法 非止其身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亦如前盟所載 是皆自取 其誰之咎 天地神明 昭布在上 各欽誓言 永勉無忽 開國·定社·佐命三功臣 未嘗同盟 上慮三功臣未能和協 會而同盟 以一其心 監司邊鎮州牧分憂者 皆來與焉 三功臣六十六人 盟訖詣闕 各賜表裏 御無逸殿 設大宴以慰之.

66)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功臣都監], [太宗 4(1404)].

有歲次甲申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67) 太宗 4(1404, 甲申, 永樂 2)年 11月 16(甲寅)日條.

甲寅/開國定社佐命功臣同盟于大清觀北上押其誓文不親臨其會其文曰.

23	上	24	以固其志自今既盟之後	以固其志既盟之後	無錄
24	上	24	各自勉勵異	各自勉勵	無錄
25	上	25	體同心忠誠相信	忠誠相信	無錄
26	上	26	忘其私憾惟順公道	忘其私憾唯順公道	字句
27	上	27	孜孜協力終始無變	孜孜協力終始無變	字句
28	上	29	外親內忌構讒造孽	外親內忌構讒造孽	字句
29	上	34	永勉無忽謹以清酌大牢式	永勉無忽	無錄
30	上	35	陳明薦尙	-	無錄
31	上	36	饗	-	無錄
32	上	37	國王臣李 芳遠	-	無錄

이상의 본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과 「太宗實錄」에 수록된 회맹문의 기록을 서로 대비하여 할 때, 字句에서 차이를 보이는 幾處를 제외하더라도 본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의 記錄이 「太宗實錄」의 기록보다 훨씬 자세함을 알 수 있다.

3.3 三功臣會盟의 參與功臣과 校勘

3.3.1 三功臣會盟의 參與功臣 名單

조선초기의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에 녹훈된 실제의 공신은 99인에 이르나,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의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공신은 66인이었다. 이는 「太宗實錄」의 同日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공신들을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6> 三功臣會盟祭의 參與功臣 名單

號	功臣名	功臣號	君號	開國	定社	佐命	手決	備考
01	權 近	推忠翊戴佐命	吉昌君	-	-	4	有	
02	金 輅	推忠翊戴開國定社	延城君	3	2	-	無	
03	金士衡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	上洛府院君	1	1	-	無	
04	金承彞	推誠翊戴佐命	麗山君	-	-	4	無	

05	金英烈	推忠翊戴佐命	義城君	-	-	3	無
06	金 宇	推誠翊戴佐命	熙川君	-	-	4	無
07	金定卿	推忠翊戴佐命	蓮城君	-	-	4	有
08	南 在	純忠奮義開國	宜寧君	1	-	-	有
09	馬天牧	推忠翊戴佐命	會寧君	-	-	3	有
10	文 彬	翊戴佐命	[越川君]	-	-	4	有
11	閔無咎	推忠靖難定社佐命	驪江君	-	2	1	有
12	閔無疾	推忠翊戴靖難定社佐命	驪城君	-	2	1	有
13	閔汝翼	推忠翊戴開國	驪川君	3	-	-	無
14	朴錫命	翊戴佐命	[平陽君]	-	-	3	有
15	朴 嘗	推誠翊戴佐命	潘城君	-	-	3	無
16	徐 愈	推誠翊戴佐命	利城君	-	-	4	無
17	徐 益	推誠翊戴佐命	麻城君	-	-	4	無
18	成石璘	輸忠同德翊戴佐命	昌寧府院君	-	-	3	有
19	孫興宗	推忠翊戴開國	杆城君	3	-	-	無
20	宋居信	翊戴佐命	[礪良君]	-	-	4	有
21	辛克禮	推忠靖難定社佐命	鷲山君	-	2	1	無
22	沈龜齡	推忠翊戴佐命	豐川君	-	-	4	有
23	沈 淙	推忠協贊靖難定社	青原君	-	2	-	有
24	安景恭	推忠翊戴開國	興寧君	3	-	-	無
25	延嗣宗	推忠翊戴佐命	谷城君	-	-	4	有
26	吳思忠	推忠翊戴開國	寧城君	3	-	-	無
27	柳 亮	推忠翊戴佐命	文城君	-	-	4	有
28	劉 敞	推忠協贊開國	玉川君	2	-	-	有
29	柳 沆	推忠翊戴佐命	瑞寧君	-	-	3	有
30	尹 坤	推忠翊戴佐命	坡干君	-	-	3	無
31	尹 穆	輸忠翊戴佐命	原平君	-	-	4	無
32	尹子當	推忠翊戴佐命	漆原君	-	-	4	有
33	尹 柢	推忠翊戴佐命	漆城君	-	-	3	有
34	李 來	推忠奮義佐命	雞城君	-	-	2	有
35	李 茂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	丹山府院君	-	1	1	有
36	李福根	推忠協贊靖難定社	奉寧君	-	2	-	有
37	李 敷	推忠翊戴開國	興城君	3	-	-	有
38	李 舒	推忠翊戴同德開國	安平府院君	3	-	-	有
39	李 淑	輸忠翊戴佐命	完川君	-	-	3	有
40	李叔蕃	推忠靖難定社佐命	安城君	-	2	1	有
41	李升商	翊戴佐命	[鷄林君]	-	-	4	有
42	李良祐	推忠協贊靖難定社	寧安君	-	2	-	有
43	李 原	推誠翊戴佐命	鐵城君	-	-	4	無

棕
敬
沂

44	李 膺	翊戴佐命	[永陽君]	-	-	4	有	
45	李從茂	推忠翊戴佐命	通原君	-	-	4	有	
46	李 稷	推忠翊戴開國佐命	星山君	3	-	4	有	
47	李天祐	推忠靖難定社佐命	完山君	-	2	2	有	
48	李 和	同德奮義開國靖難定社佐命	義安大君	1	1	2	無	
49	張思吉	純忠奮義開國定社	花山君	1	2	-	有	
50	張思靖	推忠翊戴開國定社	花城君	3	2	-	無	
51	鄭龍壽	推忠協贊開國	長城君	2	-	-	有	
52	鄭 擢	純忠奮義開國定社	淸城君	1	2	-	無	
53	趙 狷	推忠協贊開國	平城君	2	-	-	有	
54	趙 璞	奮忠仗義開國定社佐命	平原君	1	1	4	無	
55	趙 涓	推忠翊戴佐命	漢平君	-	-	4	有	卿
56	趙英茂	奮忠仗義開國靖難定社佐命	漢山府院君	3	1	1	有	
57	趙 溫	推忠協贊開國定社佐命	漢川君	2	2	4	無	
58	趙 浚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	平壤府院君	1	1	-	無	
59	趙希閔	推忠翊戴佐命	干陽君	-	-	3	無	平川
60	河 崙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	晉山府院君	-	1	1	有	
61	韓 珪	推忠翊戴佐命	沔城君	-	-	4	有	
62	韓尙敬	推忠翊戴開國	西川君	3	-	-	有	
63	咸傳霖	推忠翊戴開國	東原君	3	-	-	無	成
64	洪吉畋	推忠協贊開國	南陽君	2	-	-	無	
65	洪 恕	推忠翊戴佐命	陽城君	-	-	4	有	
66	黃居正	推忠翊戴開國佐命	義原君	3	-	3	有	
	合計				25	20	44	41

三功臣會盟祭에는 開國功臣 13인, 定社功臣 3인, 佐命功臣 31인 등 47인을 비롯하여 개국·정사·좌명공신 4인, 개국·정사공신 6인, 개국·좌명공신 2인, 정사·좌명공신 7인의 중복 錄動된 19인 등 도합 66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66인의 공신 중에서 手決로 署名한 공신은 41인이며 署名하지 않은 공신은 25인이다.

한편, 三功臣에 녹훈된 99인의 공신 중에서 66인의 공신은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의 삼공신회맹제에 참여하였으나, 33인의 공신들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表 7> 三功臣會盟祭의 不參功臣 名單

號	功臣名	生沒年	本貫	諡號	君號	開國	定社	佐命	事由	備考
01	高 呂	? -1402	濟州	-	高城君	3	-	-	卒去	
02	金 翎	? -1398	慶州	齊肅	鷄林君	3	-	-	卒去	
03	金仁贊	? -1392	楊根	忠愍	[益和君]	1	-	-	卒去	
04	南 閻	1354-1398	宜寧	剛武	宜寧君	1	-	-	卒去	
05	朴 苞	? -1400	竹山	-	-	2	2	-	卒去	
06	裊克廉	1325-1392	星山	貞節	星山君	1	-	-	卒去	
07	沈孝生	1349-1398	富有	-	富城君	3	-	-	卒去	
08	吳蒙乙	? -1398	寶城	-	寶城君	1	-	-	卒去	
09	柳爰廷	? -1399	-	-	瑞城君	3	-	-	卒去	
10	尹 虎	? -1393	坡平	靖厚	坡平君	2	-	-	卒去	
11	李居易	1348-1412	淸州	文度	西原府院君	-	1	1	流配	
12	李 懃	? -1398	固城	-	-	3	-	-	卒去	
13	李敏道	1336-1395	尙州	直憲	商山君	2	-	-	卒去	
14	李芳幹	1362-1421	全州	良僖	懷安大君	1	1	-	流配	
15	李芳遠	1367-1422	全州	恭定	靖安大君	1	1	-	不御	太宗
16	李芳毅	? -1404	全州	安襄	益安大君	1	1	-	卒去	
17	李伯卿	1363-1414	淸州	景肅	上黨君	-	1	1	流配	佇·夔
18	李伯由	? -1399	全州	良厚	完山君	3	-	-	卒去	
19	李 濟	? -1398	星州	景武	興安君	1	-	-	卒去	
20	李之蘭	1331-1402	青海	襄烈	青海君	1	2	3	卒去	歸化
21	任彥忠	? - ?	-	-	-	3	-	-	卒去	歸化
22	張 湛	? -1400	-	良安	-	2	2	-	卒去	僧侶
23	張至和	? -1398	安東	-	興城君	3	-	-	卒去	志和
24	張 哲	? -1399	安東	莊襄	花山君	-	2	-	卒去	
25	鄭道傳	1342-1398	奉化	文憲	奉化君	1	-	-	卒去	
26	鄭 摠	1358-1397	淸州	文愍	西原君	1	-	-	卒去	
27	鄭熙啓	? -1396	慶州	良景	鷄林君	1	-	-	卒去	
28	趙 琦	? -1395	白川	忠毅	銀川君	2	-	-	卒去	
29	趙 胖	1341-1401	白川	肅魏	復興君	2	-	-	卒去	
30	趙英珪	? -1395	新昌	-	-	2	-	-	卒去	評
31	趙仁沃	1347-1396	漢陽	忠靖	漢山君	1	-	-	卒去	
32	韓 忠	? - ?	[淸州]	-	-	3	-	-	卒去	農人
33	黃希頌	? -1394	平海	襄武	平海君	2	-	-	卒去	

이들 33인의 공신들 중에서 親臨하지 않은 太宗을 제외한 32인의 공신들이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는 29인의 공신들은 이미 삼공신회맹제가

거행되던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 이전에 卒去한 때문이며, 李居易 · 李芳幹 · 李伯卿 등 3인의 공신은 流配중이었던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3.3.2 三功臣會盟祭의 參與功臣 名單의 校勘

太宗 4년(1404) 11월 16일(갑인)의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功臣의 姓名과 君號 등이 「朝鮮王朝實錄」 등의 각종 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字句의 差異를 나타내는 것도 없지 않다.

이들을 각종 기록과 서로 對比하여 校勘한 결과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8> 三功臣會盟祭의 參與功臣 名單의 校勘

番號	「三功臣會盟錄」의 記錄			「朝鮮王朝實錄」 등의 記錄	備考
	段次	行次	內容	內容	
01	下	11	青原君沈淙	青原君沈淙 ⁶⁸⁾	淙一名淙
02	下	30	玉川君劉敞	玉川君劉敞 ⁶⁹⁾	敞改名敞 ⁷⁰⁾
03	下	53	瑞寧君柳沆	瑞寧君柳沂 ⁷¹⁾	沆 誤謬
04	下	54	漢平君趙涓	漢平君趙卿 ⁷²⁾	卿改名涓
05	下	55	東原君成傳霖	東原君成傳霖 ⁷³⁾	成 誤謬
06	下	60	干陽君趙希閔	平川君趙希閔 ⁷⁴⁾	干陽 誤謬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10月 1(癸卯)日條.
功臣都監上言 … 寧安侯良祐 · 青原侯沈淙 · 奉寧侯福根 · 門下侍郎李之蘭 …

6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8月 20(己巳)日條.
敕定開國功臣位次曰 … 左副承旨洪吉旼 · 成均大司成劉敞 · 判司僕寺事鄭龍壽 …

7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3年 12月 9日(戊戌)日條.
玉川府院君劉敞卒 敞古名敞 江陵府羽溪縣人 …

7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1月 15(乙亥)日條.
錄佐命功爲四等 敕曰 … 上將軍馬天牧 · 判殿中寺事趙希閔 · 奉常卿柳沂等十二人 …

7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1月 15(乙亥)日條.
錄佐命功爲四等 敕曰 … 上將軍馬天牧 · 判殿中寺事趙希閔 · 奉常卿柳沂等十二人 …

7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1年 8月 20(己巳)日條.
敕定開國功臣位次曰 … 校書監張至和 · 開城少尹成傳霖等 在前朝亂政之時 …

이를 통해서 볼 때, 沈淙의 ‘沈淙’과 ‘沈愷’은 通名の 同名이었고 劉敬과 趙卿은 ‘劉敞’과 ‘趙涓’으로 改名하기 전의 初名이었다. 그러나 柳沆·成傅霖·干陽 등은 ‘柳沂’·‘咸傅霖’·‘平川’의 오류인 듯하다.

이와 같이 「三功臣會盟錄」의 會盟文은 「太宗實錄」에 수록된 동일 會盟文의 내용보다도 더 자세하고 會盟功臣의 名單도 비교적 精確한 편이다. 따라서 본 「三功臣會盟錄」은 稀貴한 資料일 뿐 아니라 功臣研究와 人物研究 등에 귀중한 자료로 活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4. 結 論

이상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의 會盟을 수록한 「三功臣會盟錄」에 관하여 分析하고 校勘한 바, 이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초기의 三功臣은 조선의 太祖를 도와 朝鮮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開國功臣과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새로운 政權基盤을 마련하고 宗社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운 定社功臣 및 太宗이 國王으로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佐命功臣을 지칭하는 것이다.

(2) 조선시대 초기에 공신들의 집단 모임인 功臣會盟의 경우 太祖朝에는 태조 원년(1392)에 開國功臣에게 宴會를 베풀고 王輪洞에서 晦盲한 시작으로 5차에 걸쳐 會盟·宴會·獻壽한 바 있고 定宗朝에는 정종 즉위년(1398) 10월에 定社功臣 29인을 거느리고 會盟한 것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會盟·宴會한 바 있으며, 太宗朝에는 태종 즉위년(1400) 11월에 開國功臣과 定社功臣들이 上王殿과 主上殿에 獻壽한 것을 시작으로 16차에 걸쳐 獻壽·會盟·宴會·供饋한 바

7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5年 1月 21(戊午)日條.
以平川君趙希閔 兼漢城府尹.

있었다. 그러나 三功臣이 함께 會盟한 것은 태종년(1404) 11월 16일(갑인)에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된 會盟뿐이다.

(3) 『三功臣會盟錄』은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에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들이 大清觀 북쪽에서 모여 會盟한 기록으로 당시 태종은 會盟文에 署押은 하였으나 會盟祭에 親臨하지는 않았으며, 會盟祭에는 監司와 邊鎮·州·牧의 地方官들까지도 모두 참여하였다. 會盟祭가 끝나고 공신들이 詣闕하자 태종은 공신들에게 각각 表裏를 하사하고 無逸殿으로 나아가 宴會를 베풀어 공신들을 위로하였다.

(4) 『三功臣會盟錄』의 會盟文은 국왕이 공신들과 함께 犧牲物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피를 입술에 발라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돌(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誓約을 꼭 지키자!’는 丹心의 盟誓文이며,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과 『太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는 同日의 會盟文과는 字句에서 다소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의 記錄이 『太宗實錄』에 수록된 同日의 회맹문 기록보다 훨씬 자세하다.

(5) 조선시대 초기의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에 녹훈된 실제 공신의 수는 99인이었으나,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공신은 開國功臣 13인, 定社功臣 3인, 佐命功臣 31인, 개국·정사·좌명공신 4인, 개국·정사공신 6인, 개국·좌명공신 2인, 정사·좌명공신 7인 등 도합 66인이다. 그 중에서 手決로 署名한 공신은 41인이며 署名하지 않은 공신은 25인이다. 또한 親臨하지 않은 太宗을 제외한 32인의 공신들이 불참한 사유는 29인의 공신들은 이미 卒去한 때문이며, 李居易·李芳幹·李伯卿 등 3인의 공신은 流配중이었던 때문이었다.

(6)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功臣 66인의 姓名과 君號 등이 『朝鮮王朝實錄』 등의 각종 기록과 대비할 때 字句의 差異가 없지 않은 바, 沈淙의 ‘沈淙’과 ‘沈愾’은 通名의 同名이고 劉敬과 趙卿은 ‘劉敞’과 ‘趙涓’으로 改名하기 전의 初名이었으나 柳沆·成傳霖·干陽 등은 ‘柳沂’·‘咸傳霖’·‘平川’의 오류인 듯하다.

(7)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은 『太宗實錄』에 수록된 同日의 會盟文의 내용보다도 훨씬 자세하고 會盟功臣의 名單도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본 『三

功臣會盟錄」은 현재로서는 唯一 版本에 해당하는 資料일 뿐 아니라 功臣 및 功臣會盟의 研究와 人物史研究 등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참고문헌>

-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4(1404)].
- 春秋館 編. 「定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太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太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 朴文烈. “「同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書誌學會.
-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4輯(2006. 9). 書誌學會.

